

## 전국세미나 참석자들, 정의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다

글 / Yvette Moore, 번역 / 한영은

내쉬빌, 2007년 8월 14일- 연합감리교회 여성들이 이민자, 무숙자들과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시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 모임에 함께 했다. 내쉬빌의 사회적약자 대변(Advocacy) 그룹은 이 모임을 주선하고 전국세미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뒤흔들 어라”에 참석한 연합감리교회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세미나는 4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사회 정의의 훈련을 위한 것으로 스캐릿베넷 센터에서 열린다.

벤더빌트 대학에서 가진 이 기도모임은 다른 인권옹호 단체와 함께 모였는데, 최근 대학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 복지 혜택, 노동자들의 인격 존중 등에 대한 것이었다. 150명 가량의 참가하였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연합감리교회의 결의안을 읽었다.

하지만, 100도가 넘는 더운 날에 여선교회 여성들은 더 우울한 기도모임에 참석하였다. 주거지가 부족하고 무숙자들에 대한 방관과 나쁜 대우에 관한 저항을 하는 모임이었다. 2006년 8월 11일에 죽임을 당하고 강에 던져진 무숙자 여성 타라 콜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렸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테네시주 수도에서 열린 기도모임에 연합하여 이민에 반대하는 법안에 저항하는 모임에서 현재 이민정책이 이민 가정에 대한 주는 피해나 영향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

콜롬비아, 테네시에서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경찰관이 집까지 따라와서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운전면허와 자동차 등록서를 보여주었지만 경찰은 이민국 서류를 요구하였고, 보여주지 못하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구속하였다”고 말했다.

바바도스에서 이민은, 미군 퇴역군인 노블 여사는 미국의 현 이민 정책이 위반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히스패닉들이 미국 안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라고 노블 여사는 말한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은 백인인데 사장의 할머니가 미국에 먼저 와서는 자기의 여권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면 할머니의 여동생이 미국에 올 때 사용했고, 다시 보내서 다른 친척이 미국에 올 때 그 여권을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도 아일랜드나 유럽에서 온 사람중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백인들은 주류에 잘 섞이고 경찰에게 걸리는 일도 없다”

새로 오는 이민자들을 내쫓으려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여기에서 왜 저임금 노동을 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들의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감리교회여선교회는 미국안의 연합감리교회만 해도 회원이 80만명이나 되는 조직이다. 목적은 영적 성장, 지도력 개발, 그리고 정의를 구하는데 있다. 이런 여선교회는 일년에 약 2천만 달러를 미국내와 전 세계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계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 이 글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 <http://new.gbgm-umc.org> 에 실린 것으로 Yvette Moore (Response지 Contributing Editor)가 쓴 것을 한영은 전도사(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가 번역한 것이다.